

## 국내 학부 통역전공자 인식 조사: 통역 교육 및 통역사 직업에 관한 소규모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이 상 빈  
(한국외국어대)

###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학부 통역전공자들이 통역 교육 및 통역사 직업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필자는 서울시내 한 대학의 영어통번역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소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보고할 것이다.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의 학부 통역교육 과정은 학생들의 외국어 구사력을 제고하고 다양한 주제에 대한 폭넓은 배경지식을 함양토록 하며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소위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배가시킬 수 있도록 구

---

\* 이 연구는 2013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성되어 왔다.<sup>1)</sup> 하지만 교과과정을 개편하거나 수업의 내용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교육 수요자에 대한 필요분석(needs analysis)이나 인식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는 불분명하다. 전공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중요한 이유는 학생들의 인식 자체가 학습 동기는 물론, 진로선택 및 향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학부 통역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 특히 통번역 교육을 주제로 한 연구에는 조성은(2007), 남원준(2009) 등이 있다. 특히 남원준(2009)은 서울 소재 주요 세 개 대학의 학부생 1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통번역 교육에 관한 학부생들의 인식을 상세하게 보고하였다. 그는 “언어지식”, “입학동기 및 진로”, “교육목표”, “원어강의”, “교과과정” 등의 영역에서 학부생들의 인식을 분석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부 통번역 교육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했다. 하지만 본 연구는 통역 분야만을 선택하여 연구의 초점을 강화했고 직업 분야에 대한 문항을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남원준(2009)과는 다르다.

한편, 통역사 직업에 대한 인식 조사는 주로 국외의 연구에서 이루어졌다. 예컨대 뢰히하커(Pöschhacker 2011)와 쯔비센베르거(Zwischenberger 2011)는 국제회의 통역사의 ‘역할’에 대해 메타담화적 설문을 시행했고, 카탄(Katan 2011)은 통(번)역 전문교육 및 직업 세계에 대한 통(번)역사의 인식을 비교·연구한 바 있다. 또한 세톤과 구오(Setton and Guo 2011)는 중국어권에서 통(번)역사의 역할, 지위, 정체성 등에 관한 인식과 관점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어디까지나 전문통역사 자신의 관점(self-representation)을 소개한 것으로, 본 연구의 맥락인 교육적 측면보다는 사회적 측면을 강조한 것들이다. 다만, 필자는 외국의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졌던 일부 문항들이 본 설문 대상과 내용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문항을 직접 활용하기로 했다(제3장에서 확인 가능).

본 논문의 구성은 간단하다. 제2장에서는 설문의 대상·시행·구성·분석방법이 소개되고, 이어 제3장에서는 설문의 분석 결과가 문항별로 기술된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연구의 요약과 한계 등이 간략하게 제시된다.

1) 영어통번역전공을 둔 서울소재 주요 대학(경희대, 동국대, 한국외대)의 홈페이지 참고

## 2. 연구방법

### 2.1. 설문대상

설문은 A대학의 영어통번역학과 재학생들(2013년 1학기 현재 외국에 나가 있는 교환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 대학은 영어통번역학과를 갖춘 서울 소재의 주요 대학 세 곳 중 하나로, 필자는 이 대학의 영어통번역학과가 우리나라의 학부 통역전공자를 대표적으로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설문의 목적과 내용을 감안하여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은 A대학에서 통역 수업을 한 과목 이상 수강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재학생 가운데 통역 수업을 수강한 학생을 1차적으로 선별하고, 통역 수업의 수강 여부를 물어보는 문항을 제시하여 설문대상을 2차적으로 필터링하였다. 또한 해당 대학의 통역 수업은 한 과목을 제외하면 모두 3~4학년 과목이고 2학년을 위한 통역 수업은 기초 이론에 강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기본 설문 대상자는 3~4학년으로 한정하였다.

### 2.2. 설문방법

설문의 작성·수집·분석을 위해 온라인 설문 서비스 사이트인 서베이몽키(SurveyMonkey)를 이용하였다. 먼저 재학생들의 이메일 리스트를 확보한 후 샘플에 부적합한 학생들(통역 수업 수강 경험이 없는 학생, 외국인(중국인) 학생, 통역 수업이 없는 신입생 등)을 제외시켰다.<sup>2)</sup> 그리고 최종적으로 남은 127명의 학생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여 설문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설문참여를 부탁했다. 이메일 하단에는 온라인 설문 페이지로 연결되는 하이퍼링크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클릭 한 번으로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를 다시 한 번 독려하는 후속 이메일(follow-up email)은 최초 이메일을 보내고 10일 후에 발송했다.

2) 학교 인트라넷에서 학생 집단의 변수를 조정하여 필터링할 수 있다.

### 2.3. 설문구성

1차적으로 완성된 설문은 통역을 전공한 대학원생 두 명의 도움을 받아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를 검사하였다. 문구의 수정을 가한 후 최종적으로 완성된 설문은 총 15문항으로 아래와 같이 구성되었다.

- Part I: 응답자 기본정보에 관한 부분 (네 문항)
- Part II: 통역 교육과 관련된 부분 (다섯 문항)
- Part III: 통역사 직업과 관련된 부분 (여섯 문항)

먼저 Part I에는 <1>성별, <2>해의 체류·거주 경험, <3>실제 통역 경험 횟수(단답식 문항), <4>통역 수업 수강 여부와 관련된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 통역 경험의 횟수를 기입하도록 한 <문항 3>의 경우, 정확한 횟수를 떠올리기 어려운 응답자는 대략의 수를 적도록 했다. 통역 수업 수강 여부를 물어보는 <문항 4>는 샘플의 적절성을 판별하기 위한 필터링 문항으로, 샘플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구자의 실수를 없애고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을 방지하기 위해 포함되었다.

Part II는 통역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개략적으로 물어보고 있다. 여기에는 <5>입학·지원 동기,<sup>3)</sup> <6>통역 교육을 받은 후 통역에 대한 인식 변화, <7>통역 교육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느낌(주관식 문항), <8>통역을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주관식 문항), <9>커리어(career)로써 통역에 대한 자신의 희망과 생각 등 총 다섯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가운데 입학·지원 동기를 묻는 <문항 5> 등은 조성은(2007)과 남원준(2009)에서도 조사된 바 있어, 간접적인 응답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sup>4)</sup>

3) A대학의 영어영문학부 1학년 학생들의 경우 전공 신청 및 심사를 거쳐 2학년 때부터 영어통번역학 또는 영어영문학을 전공한다.

4) 남원준(2009:45)은 입학동기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영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입학”, “적성을 고려하여 입학”, “통번역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주제지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입학”, “취업에 유리할 것이라 판단하여 입학”, “수능 등 입학시험 성적에 맞춰서 입학”, “(학부 졸업 후) 통번역사가 되기 위하여 입학”, “전문통번역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하여 입학”, “(학부 졸업 후) 통역사가 되기 위하여 입학”, “(학부 졸업 후) 번역사

끝으로 Part III는 통역사 직업(크게는 ‘통역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물어보는 여섯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10>전문통역사에 대한 사회적 처우 및 대우, <11>전문통역사와 유사한 직업군(주관식 문항), <12>통역사의 역할(복수응답가능), <13>전문통역사라는 직업의 가장 큰 장점(주관식 문항), <14>전문통역사라는 직업의 가장 큰 단점(주관식 문항), <15>전문통역사의 미래 전망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Part III에서는 통역 직업인을 지칭하는 용어로 “전문통역사”(professional interpreter)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기관통역사”(staff interpreter)와 “프리랜스통역사”(freelance interpreter)를 통합적으로 지칭하여(두 부류의 구분을 피하여) 설문시행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서다. 또한 소속 등에 따른 두 부류의 차이를 실감할 수 없는 학부생들을 위한 고려이기도 했다.<sup>5)</sup> Part III의 문항들은 통역 경험과 역량이 부족한 학부생들의 ‘관점’과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그 응답내용들이 전문통역사의 그것과는 다를 수 있다. 하지만 통역사에 대한 학부생들의 인식은 통역 학습의 동기 부여와 향후 진로 선택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의 여부와 관계없이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 2.4. 분석방법

교차분석을 포함한 설문의 정량분석은 기본적으로 서베이몽키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하기로 하였다. 다만, 주관식 문항의 경우 내용타당도를 분석한 대학원생 두 명과 함께 코딩을 실시했다. 즉, 연구자를 포함한 세 명이 각 주관식 문항에 대해 개별적으로 코딩을 한 후 그 결과를 함께 비교하여 코딩 문구를 완성하고 다듬었다. 코딩 영역에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 토론을 통해 코딩 결과를 통일하고 최종 문구를 확정하였다.

가 되기 위하여 입학”, “기타” 등으로 상세히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번역’을 제외하였고, 간단하게 다섯 가지의 보기만을 제시하였다.

5) 그러나 주관식 문항의 응답 내용을 살펴본 결과, 상당수의 학생들이 프리랜스통역사를 염두에 두고 질문에 응했다. ‘기관통역사’와 ‘프리랜스통역사’의 구별은 소속 기관의 유무에 따라 이루어진다(cf. consultant interpreters). ‘전문통역사’는 통역대학원과 같은 전문교육기관에서 고도의 훈련을 받고(또는 통역인증시험에 통과하고), 통역을 제 1직업으로 선택하여 활동하고 있는 통역사를 총칭한다.

### 3.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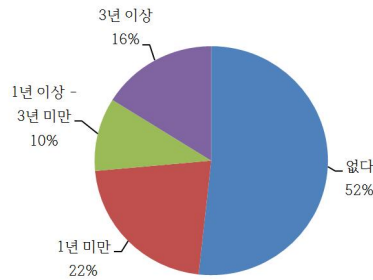
첫 번째 이메일을 통해 응답한 학생의 수는 64명이었고 후속 이메일을 발송한 후 응답한 학생은 27명이었다. 이 가운데 결측치나 무응답이 포함된 답변은 없었으나 네 명의 응답자가 <문항 4>에서 “통역 수업을 수강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따라서 최종분석에서 사용된 총 응답자의 수는 87명이었고 실효 응답률은 약 69%로 집계되었다. 본 설문이 수업도중 진행되는 소위 ‘포획집단’(captive group)에 대한 설문이 아닌 만큼 70%에 가까운 응답률은 높은 편이라고 판단된다. Part 별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 3.1. Part I (문항 1~3)

응답자 87명 가운데 남학생은 27명(31%), 여학생은 60명(69%)으로 재학생의 남녀비율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문항 1>의 분석 결과).

해외 체류·거주 경험을 물어보는 <문항 2>와 관련해서는 “없다”가 51.7%(45명)로 가장 많았고, 3년 이상 체류한 학생의 경우 16.1%(14명)로 나타났다. <문항 2>의 답변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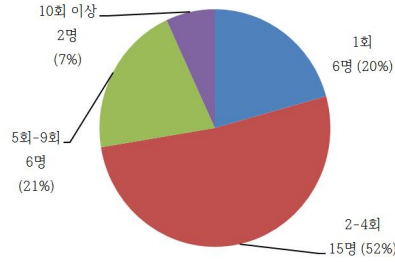
(그림 1) 해외 체류·거주 경험은? (3개월 미만, 단순 여행 제외)



\*본 논문의 [그림]에서 제시된 모든 % 수치는 반올림한 값이다.

한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통역 실습 이외에 실제로 통역 경험이 있는 학생의 수는 전체 응답자의 1/3(29명)이었고, 이들의 평균 통역 횟수는 3.52회로 나타났다. 통역 경험자만을 대상으로 할 때 <문항 3>의 답변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실제 통역 경험의 횟수는? (단답식 문항, 유경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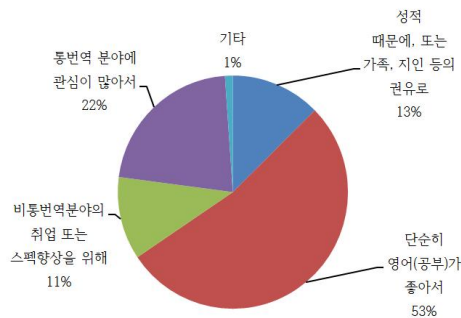


이처럼 학부의 통역전공자들도 교실 밖에서, 실제로 통역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교실 환경만을 전제로 하고 통역 수업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학생들의 실전 경험 가능성을 고려하여 교육의 실무적 성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간 학부교육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고 실무에서만 느낄 수 있는 문제들(통역의 중립성, 충실성, 윤리, 서비스 마인드 등)도 교육과정에서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3.2. Part II (문항 5~9)

영어통번역학과에 입학·지원한 동기와 관련해서는 [그림 3]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문항 5>의 결과).

(그림 3) 영어통번역학과에 입학·지원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영어통번역학과에 입학·지원한 가장 큰 이유는 “단순히 영어(공부)가 좋아서”(52.9%), “비통번역분야의 취업 또는 스펙 향상을 위해”(11.5%) 등으로 나타났다.<sup>6)</sup> “통번역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진학한 학생은 총 21.8%로, 통번역 분야를 최우선 사항으로 염두에 두고 입학한 학생은 전체 응답자 가운데 1/4도 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사항을 상기시킨다. 첫째, 질(Gile 2001)과 자니라또(Zannirato 2008:21)가 지적하였듯이, 최근 학부의 통역전공자들은 예전과 달리 외국어 실력이 (전문통역사가 되기에는) 부족한 비이중언어사용자(non-bilinguals)이다. 둘째, 본 문항의 응답 결과는 영어통번역학과에 입학 동기가 “영어능력 향상”(44.1%)이었음을 보여준 조성은(2007:174)과 “영어”(49.6%) 및 “취업”(23.0%)이었음을 보여준 남원준(2009:25)의 연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조심스럽게 주장하자면, 국내 영어통번역학과 학생들의 주요 입학 동기는 조성은(2007)의 연구가 시행된 지 약 7년이 지난 시점에서 여전히 ‘영어’ 또는 ‘취업’과 관련이 크다.<sup>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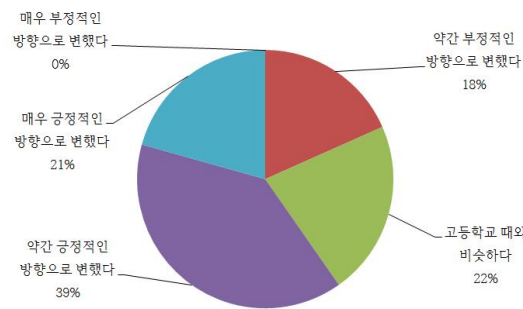
참고로, 당초 <문항 5>에서 “기타: \_\_\_\_\_”를 선택한 학생은 총 여섯 명이었다. 이들은 각각 (1)“영어교직을 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2)“국가고시의 영어과목을 위해”, (3)“통역대학원 진학을 위해”, (4)“진로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5)“영어를 기초부터 배우기 위해” (6)“여기 오면 영어도 잘해 나중에 도움이 되니까”라고 답하였다. 여기서 (1), (2), (4), (6)번은 그 성격상 “취업 또는 스펙을 위해”와 유사하며, (3)번 응답의 경우 “통번역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에 해당한다. [그림 3]은 “기타: \_\_\_\_\_”의 응답 내용을 코딩하여 다른 보기와 함께 정량화한 결과이다.

이어 <문항 6>에서는 학부에서 통역 교육 및 훈련을 받으면서 통역 분야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의 변화를 물어보았다.

6) “언제부터인가 취업준비생들은 출신학교와 학점, 토익점수와 자격증 소지 여부, 그리고 해외연수나 인턴 경험 유무 등을 종합해 ‘스펙’이란 두 글자로 줄여 부르고 있다. 대학 시절 동안 자신이 확보할 수 있는 외적 조건의 총체가 스펙인 셈이다.” (주간경향, [기자수첩] 당신의 ‘스펙’은 얼마인가, <http://www.wkh.kr/khnm.html?mode=view&artid=8748&code=114>)

7) 세 연구 모두 샘플 및 모집단 환경이 서로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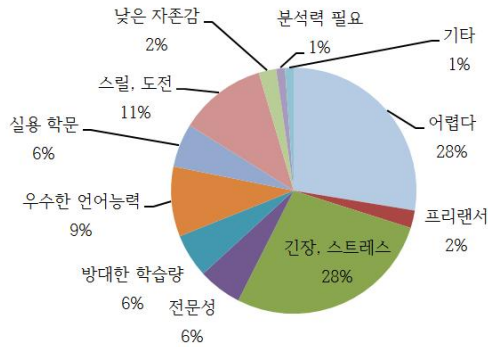
(그림 4) 대학에서 통역교육을 직접 받아보면서  
통역분야에 대한 귀하의 생각과 느낌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답변 결과를 보면 59.8%(52명)의 학생들이 입학 전과 비교해 봤을 때 “약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했다” 또는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했다”라고 답했다. 반면, “약간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했다”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18.4%(16명)였는데, 이들 모두 <문항 7>에서 “스트레스”(12명), “긴장”(2명) 또는 “낮은 자존감”(2명)이라고 응답하였다(아래 <문항 7> 결과 참조). 따라서 부정적으로 인식이 변한 학생들의 경우, 그러한 인식의 변화는 통역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정신적 부담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

<문항 7>에서는 통역 수업 및 훈련을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나 구절 하나를 적도록 했다. 이 문항은 학생들이 통역 교육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배적인 느낌과 인상을 파악하기 위해 포함되었다. 그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5) 통역 수업·훈련을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주관식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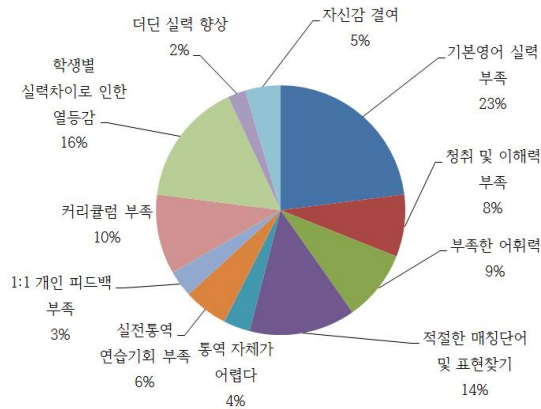
[그림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응답자의 57.5%(60명)는 “어렵다”, “스트레스”(또는 “긴장”), “낮은 자존감” 등과 같이 부정적인 느낌의 답변을 내놓았다. 반대로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느낌의 답변은 “스릴과 도전의식[이 생긴다]”(11.5%), “우수한 언어능력[이 요구된다]”(9.2%), “방대한 학습량[이 필요하다]”(5.7%) 등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 상당수가 통역(수업)을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A대학의 통번역학과가 이와 같은 심리적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는 장차 고민해봐야 할 문제인 듯싶다(이와 같은 심리적 문제가 A대학 통역전공자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다). 물론 통역이 가져다주는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한다면 훌륭한 통역사로 성장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많은 학생들이 전문통역사를 목표로 입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문제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을 수 있다.

<문항 8>에서는 학부에서 통역을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응답자의 54.0%(47명)는 “기본영어 실력 부족”, “[영어]청취 및 이해력 부족”, “부족한 어휘력”, “적절한 단어 및 표현 찾기” 등으로 답변하면서, ‘통역을 위한 기본 언어능력의 부족’을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꼽았다.<sup>8)</sup> 이어 통역(학습)과 관련된 자신의 정신 및 감정 상태를 지적한

8) “청취 및 이해력 부족”, “부족한 어휘력”, “적절한 매칭 단어 및 표현 찾기” 등의 답은 “기본영어 실력 부족”으로 포괄하여 이해할 수 있다. 어떤 학생들은 “외국어실력

학생들도 많았는데, 그 비율은 “학생별 실력차이로 인한 열등감”, “더딘 실력 향상”, “좌절감”, “자신감 결여” 등을 합하여 총 22.9%(20명)로 계산되었다. 한편, 통역교육상의 문제를 지적한 학생은 19.5%(17명)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실전통역 연습기회 부족”, “개인별 피드백 부족”, “커리큘럼의 다양성 부족” 등을 지적했다.

(그림 6) 통역을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주관식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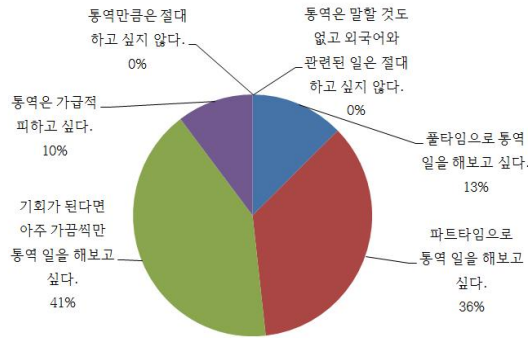
<문항 8>의 결과는 학부의 통역 교육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확인시켜 준다. 첫째,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은 언어능력과 관련이 있으며, 따라서 통역실습 그 자체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통역을 위한 기본 언어능력을 높여야만 교육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 둘째, 많은 학생들이 심적 부담을 갖고 있으며 이는 그들의 학습 활동에 잠재적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자신감이 부족한 학생들과 상대적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모두 “해외체류 경험이 없다”)이 21%에 달한다는 사실은 통번역 교과목의 난이도 구분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남원준(2009:40)의 주장과 함께, 통역에 있

“부족” 등과 같이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하였으나, 또 다른 학생들은 “중(고)급 어휘가 딸린다”는 식의, 보다 구체적인 답안을 제시했다. <문항 8>에서는 언어실력과 관련된 답안이 많았기 때문에 [그림 6]과 같이 코딩했다.

어 자신감의 향상(또는 불안감 해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 준다 (Jimenez Ivars and Pinazo Calatayud 2002, Chiang 2009, Bontempo and Napier 2011 등).

<문항 9>에서는 커리어, 직업으로써의 통역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과 희망을 물었다. [그림 7]에서 볼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학생들은 졸업 후 자신의 업무 분야에서 통역 수행을 긍정적인 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림 7) 직업으로써(또는 자신의 업무분야에서) 통역에 대한 생각·희망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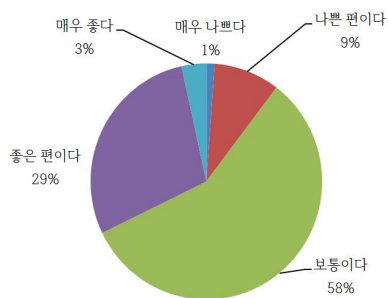


<문항 9>의 응답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풀타임으로 통역 일을 해 보고 싶다”고 답한 학생은 총 11명(12.6%)으로 이 가운데 여덟 명은 “통번역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통번역학과에 입학했고, 나머지 세 명은 “단순히 영어 (공부)에 관심이 많아서” 진학한 학생들이었다. 특히 풀타임 통역사를 희망하는 여덟 명의 학생들은 실전 통역경험이 각각 13회(2명), 8회(2명), 5회(2명), 3회(2명)에 이르는, 통역경험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학생들이었다. 즉, 통역사를 미래의 직업으로 원하는 학생의 경우, 대부분 고등학교(이전) 시절부터 자신의 진로를 모색하고 학부에서도 그 꿈을 이어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참고로 “통역은 가급적 피하고 싶다”라고 응답한 9명(10.3%)은 입학 동기나 통역에 대한 인식변화 등의 측면에서 볼 때, 공통된 성향을 보이지 않았다.

### 3.3. Part III (문항 10 ~ 15)

<문항 10>의 분석 결과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전문통역사에 대한 사회적 처우 및 대우는 나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sup>9)</sup> “나쁜 편이다” 또는 “매우 나쁘다”라고 응답한 학생의 수는 10.3%(9명)에 불과했고,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57.5%였다. <문항 10>의 응답 결과는 [그림 8]과 같다.

[그림 8] 전문통역사에 대한 사회적 처우 및 대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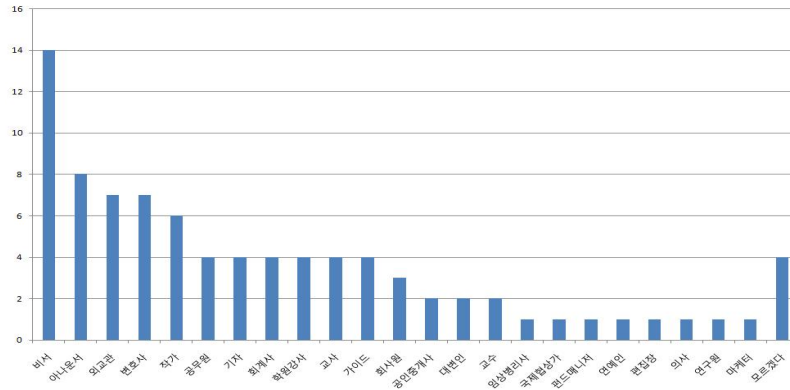


교차분석 결과, <문항 10>에서 “좋은 편이다” 또는 “매우 좋다”를 선택한 약 32%의 응답자(28명)는 통역사의 최대 장점을 묻는 <문항 13>에서 “자유로운 시간관리가 가능해 편안하다”, “무엇보다도 보람과 긍지가 크다”, “식견을 넓힐 수 있다”,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등의 답변을 내놓았다. 즉, 전문통역사의 사회적 처우 및 대우를 좋다고 인식한 학생들은 “높은 금전적 보수”, “사회적 인정” 등의 물리적, 외적 요인보다는 심리적, 내적 요인 등을 통역사의 최대 장점으로 뽑았다.

<문항 11>에서는 통역사와 비슷하다고 판단되는 직업을 써보도록 했다. 그 결과는 [그림 9]와 같다.

9) <문항 10>과 <문항 11>은 카탄(Katan 2011:76-7)의 아이디어를 A대학의 학부생들에게 적용한 것이다.

(그림 9) 전문통역사와 유사한 직업은? (주관식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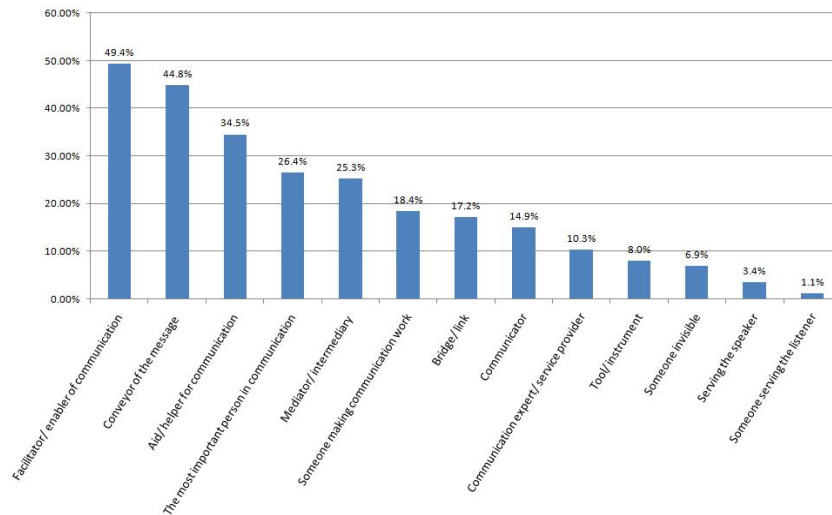


[그림 9]에서 볼 때, 통역사와 비슷한 직업은 “비서”(14명), “아나운서”(8명), “외교관”(7명), “변호사”(7명), “작가”(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기자”(4명), “학원 강사”(4명), “교사”(4명), “가이드”(4명) 등의 직업까지 감안한다면, 학부생들은 전문통역사를 대개 ‘자유직이면서 고도의 화술과 언어 능력을 요하는 전문 직종’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본 문항은 카탄(Katan 2011) 및 세톤과 구오(Setton and Guo 2011)의 설문에서도 시행된 바 있는데, 전자의 경우 “교사”, “비서”, “컨설턴트”, “기자”, “작가”, “대학교수”, “의사” 등의 답변이 나왔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대학교수”, “기자”, “변호사”, “컨설턴트”, “교사” 등의 답변이 나왔다.<sup>10)</sup> 이 때 “대학교수”나 “교사”가 유사 직종으로 언급된 이유는 많은 통역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통역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Setton and Guo 2011:104-5), 본 설문에서도 “교사”(4명), “학원 강사”(4명), “교수”(2명) 등이 유사직종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A대학의 교강사 역시 전·현직 전문통역사임을 감안하면 학생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답변이 가능했을 거라는 추측이다. 본 문항이 주관식 형태로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내용이 카탄(Katan 2011), 세톤과 구오(Setton and Guo 2011) 등과 유사하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직업 성격에 대한 학부생들의 인식은 현직 통역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10) 두 논문에서 각 직업군의 빈도수(%)를 보여주는 그림은 데이터 레이블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 어렵다.

통역사의 역할에 관한 <문항 12>에 대해서는 응답자들이 13개의 객관식 보기 가운데 최대 세 개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그림 10] 참조).<sup>11)</sup> 복수 응답을 허락한 이유는 통역사의 역할이 매우 복잡하여 단일 개념으로 규정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Angelelli 2004). 본 문항에 사용된 보기는 쾰비첸베르거(Zwischenberger 2011)가 국제회의통역사협회(AIIC)의 전문통역사들을 대상으로 코딩한 15개의 답변 가운데 두 개를 제외하고 추출한 것이다.<sup>12)</sup> 이로써 학부통역전공자와 전문통역사의 인식 비교가 조금이나마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

[그림 10] 통역사는 어떠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상당수는 통역사를 “Facilitator/enabler of communication”(1위, 49.4%), “Conveyor of the message”(2위, 44.8%), “Aid/helper for communication”(3위, 34.5%), “Mediator/intermediary”(5위, 25.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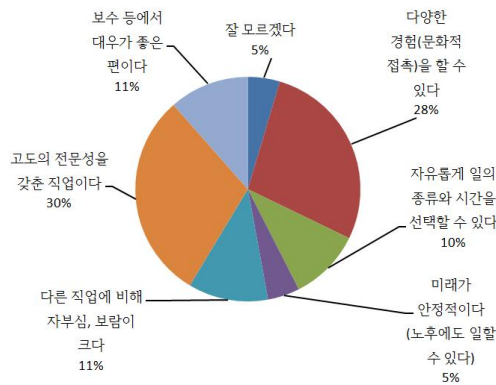
11) 모든 응답자가 세 개씩 고를 경우 총 빈도수는 261이다. <문항 12>에서 수집된 응답 빈도수는 227이었다.

12) 삭제된 두 보기는 “interesting and challenging”과 “other”였다. 여기서 “interesting and challenging”은 통역사의 업무적 역할이라 보기가 어려워 삭제하였다.

와 같은, 소위 커뮤니케이션 촉진자, 조력자, 중재자 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sup>13)</sup> 이는 쾰비첸베르거(Zwischenberger 2011)의 설문결과와 대동소이한 것으로, A 대학의 통역전공자들도 전문통역사와 비슷하게 통역사의 역할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쾰비첸베르거(Zwischenberger 2011:126)에서는 “The most important person in communication”이 8위(7.0%)를 차지했던 반면, 본 설문에서는 다소 높은 순위인 4위(26.4%)로 선택되었다.<sup>14)</sup> 이와 함께 “Tool/ instrument”(8.0%), “Someone invisible”(6.9%) 등이 미미한 비율인 점을 감안해 보면, 아마도 A 대학의 통역전공자들은 통역사를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 보는 것 같았다.

한편, <문항 13> 및 <문항 14>에서는 통역사라는 직업이 갖는 “가장 큰 장점”과 “가장 큰 단점”에 대해서 물었다. 응답 데이터의 코딩결과는 각각 [그림 11] 및 [그림 12]와 같다.

[그림 11] 전문 통역사라는 직업의 가장 큰 '장점'은? (주관식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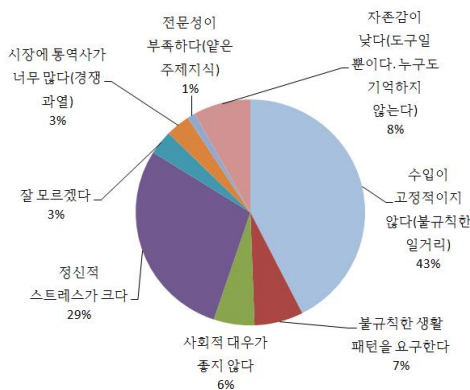
“가장 큰 장점”과 관련하여 특이한 점은 전문 직종이 갖는 물리적 조건(가령, “보수 등에서 대우가 좋은 편이다”)이 주된 답변을 구성하기 보다는 “고도의 전문성(기술)을 갖춘 직업이다”(30%),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

13) 13개의 문항을 번역하여 제시할 경우 느낌의 차이가 발생하여 쾰비첸베르거(Zwischenberger 2011)와의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울 수도 있다.

14) 다만, 쾰비첸베르거(Zwischenberger 2011)에서는 복수응답을 허용한 폐쇄형 문항이 아니었다.

다”(28%), “자부심, 보람이 크다”(11%) 등 비물리적 조건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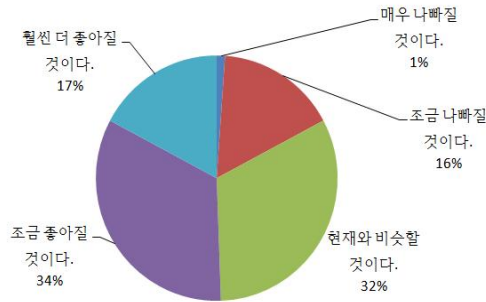
(그림 12) 전문통역사라는 직업의 가장 큰 ‘단점’은? (주관식 문항)



한편, 응답자의 42.5%(37명)는 불규칙한 수입과 일거리를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했는데 이는 최근 대학생들이 공무원, 교사 등과 같이 비교적 안정적인 직종을 선호하는 현상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어 “정신적 스트레스”(28.7%, 25명), “낮은 자존감”(8.0%, 7명), “불규칙한 생활패턴”(6.9%, 6명), “낮은 사회적 대우”(5.7%, 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사실은 “정신적 스트레스”라는 답변은 응답자의 주관적 관점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다. 실제 전문통역사의 직업 스트레스가 큰지는 검증되지 않았으나, 통역 세계에 대한 경험이 없는 (또는 제한적인)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와 같은 답변이 나왔다는 것은 답변의 내용이 현재 응답자의 심리적, 인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을 거라는 추정이다. 본 문항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언급했던 25명의 학생들 가운데 23명은 통역수업과 관련된 <문항 7>에서 “어렵다”, “긴장”, “스트레스” 등의 부정적 느낌의 답변을 내놓았다. 따라서 해당 학생들이 통역 수업과 관련되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느낌은 직업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본 문항에서 “사회적 대우가 좋지 않다”라고 언급한 다섯 명의 학생들 전원은 전문통역사의 사회적 대우와 처우를 묻는 <문항 10>에서 “나쁜 편이다”를 선택함으로써 답변의 일관성을 보였다.

끝으로 <문항 15>에서는 [그림 13]에서처럼 미래의 전망을 물었다.

(그림 13) 통역사라는 직업의 미래(10~20년 후)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항에서 “조금 나빠질 것이다” 또는 “매우 나빠질 것이다”로 응답한 학생은 전체의 17.2%(15명)였으며, “조금 더 좋아질 것이다” 또는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50.5%(44명)였다.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은 32.2%(28명)로, 이들 모두 현재 통역사의 처우와 대우를 묻는 <문항 10>에서는 “보통이다”(11명) 또는 “좋은 편이다”(17명)를 선택하였다. 외국어 교육의 확대, 기계통번역의 개발 등으로 통역직업의 하락세가 예상되고 있고 국내 통역사의 ‘10년 후 근무여건’도 악화될 거라는 설문조사(한상근 외 2010:86)도 있지만,<sup>15)</sup> A대학의 전공자들은 전문통역사라는 직업의 전망을 대체로 밝게 보고 있었다.

15) 10년 후 시점에서 근무시간, 근무환경, 스트레스 등 해당 직업에서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작업여건을 고려했을 때 전망이 낮은, 하위 20개 직업 가운데 하나가 “통역가”였다. 한상근 외(2010)는 153개 세분류 직업의 관련 직업 전문가(현직자, 직업관련 연구자, 대학교수, 직종별 협회 관계자 등)를 대상으로 대규모 설문을 실시하였다. 정윤경 외(2008)의 결과를 보면 “통역가”는 “일자리 성장 영역”, “자기개발 가능성”, “근무시간” 등의 영역에서 상위 순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종합적인 직업 지표 평가에서는 중간그룹에 포함되어 있다(p. 358). 또한 “현재, 미래 모두 직업전망이 보통인 직업목록”에도 통역가가 포함되어 있다(p. 365). 하지만 한상근 외(2010)와 정윤경 외(2008)에서 언급된 “통역가”가 ‘국제회의 통역사’만을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범위의 통역사를 총칭하는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 4. 결론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Part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Part I에서는 설문 대상의 기본 정보가 제시되었다. 해외 체류와 관련된 문항에서는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해외 체류나 거주 경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응답자의 1/3이 실전 통역 경험(평균 3.5회)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국내 학부 통역전공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요구하는 한편, 학부 ‘통역사’에 대한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어 Part II에서는 통역 교육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문항들이 있었다. 응답자의 64%는 가장 큰 입학·지원 동기로 ‘영어’ 또는 ‘취업’을 선택했으며 “통번역에 관심이 많아서” 지원한 학생은 22%에 불과했다. 통역 교육을 직접 받아본 후 통역 분야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물어 본 문항에서는 약 60%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또는 매우 긍정적인 변화를 겪었다고 답변했다. 반면, 부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학생들은 전체의 18%로, 이들 모두 통역 실습에 대해 심리적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통역 교육이 즉각적으로 연상시키는 단어나 문구를 조사한 문항에서는 부정적 심리 요소, 가령 “스트레스”, “긴장”, “어려움”, “낮은 자존감” 등이 빈번히 언급되었다. 또한 통역을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요소를 적는 문항에서는 과반수의 학생들이 ‘기본 영어실력의 부족’을 지적했고, “좌절”, “자신감 부족”, “열등감” 등의 감정적 요소를 언급한 학생도 전체의 1/4에 달했다. 한편, 졸업 후 자신의 업무 분야에서 통역을 하고 싶은지를 묻는 문항에서는 응답자의 90%가 적어도 간접적으로 또는 간헐적으로나마 통역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밝혔다. 따라서 A대학의 많은 학생들은 통역분야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과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기초언어실력의 부족 등으로 통역을 어려워하거나 통역수업에 대해 심리적 스트레스를 안고 있었다.

마지막 Part III에서는 통역사 직업에 대한 여섯 개의 문항이 제시되었다. 먼저, 전문통역사의 사회적 처우와 대우를 묻는 문항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보통’ 또는 ‘좋음’의 평가를 내렸다. 또한 10~20년 후 전문통역사의 전망을 묻는 문항에서는 절반의 응답자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답변했고,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응답자는 17%에 불과했다. 한편, 통역사와 유사한 직업으로는 전

문통역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비서”, “아나운서”, “외교관”, “변호사”, “교(강)사” 등이 선택되었고, 통역사의 역할을 묻는 문항에서도 전문 통역사의 응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조사 대상의 1/4 이상은 통역사를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로 인식하면서 통역사의 가시성과 존재감을 크게 부각시키기도 했다. 이어 통역사의 가장 큰 장점을 묻는 문항에서는 “자부심”, “문화적 경험”, “전문성” 등의 비물리적 조건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반대로 단점을 묻는 문항에서는 과반수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직업 불안정성과 관련된 언급을 했다.

지금까지 본 연구는 특정 대학의 학부 통역전공자를 대상으로 통역교육 및 통역사 직업에 대한 인식의 문제를 다루었다. 조심스럽긴 하지만 본 설문 결과의 국내 학부의 통역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학부생의 진로지도에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활용된 설문 문항들은 통역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이나 현직 통역사 등에게도 일부 적용이 가능하며, 통역에 관한 특정 집단의 인식을 조사하고 집단 간의 인식 비교를 위한 토대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주로 이론적으로만 다루어져 왔던 통역전공자의(에 관한) 문제들을 실증적으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도 명확하다. 무엇보다도 모든 영어통번역학부(과)를 조사한 것이 아닌데다, 설문 문항들이 개괄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어 답변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 또한 본 연구가 선택한 소위 ‘자기 보고식 설문’(self-report questionnaire)은 본연적으로 예비의(preliminary)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문의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비록 본 연구가 서울 소재의 주요 대학을 분석한 사례연구이기는 하지만, 연구의 결과가 보다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타 대학을 포함하는 대규모 샘플을 대상으로 보다 구체적인 문항 작성과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단일 사례에 대한 종단연구(longitudinal study)도 병행된다면 학부 통역전공자의 인식을 추적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남원준 (2009) 「학부 통번역교육에 관한 일고찰: 선행연구의 주요 논점에 관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3(1): 21-51.
- 정윤경, 한상근, 오호영, 장혜정, 김나라 (2008) 『KRIVET 직업전망 지표 개발 (2008)』,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조성은 (2007) 「학부 통번역학과의 교육과정 연구: 재학생 대상 실태분석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8(2): 163-91.
- 한상근, 정윤경, 장혜정, 김나라, 이종선 (2010) 『KRIVET 직업전망 지표 개발 (2010)』,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Angelelli, Claudia (2004) *Revisiting the Interpreter's Role: A Study of Conference, Court, and Medical Interpreters in Canada, Mexico, and the United States*,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Bontempo, Karen and Jemina Napier (2011) 'Evaluating Emotional Stability as a Predictor of Interpreter Competence and Aptitude for Interpreting', *Interpreting* 13(1): 85-105.
- Chiang, Yung-Nan (2009) 'Foreign Language Anxiety in Taiwanese Student Interpreters', *Meta: Translators' Journal* 54(3): 605-21.
- Gile, Daniel (2001) 'L'évaluation de la Qualité de L'interprétation en Cours de Formation', *Meta: Translators' Journal* 46(2): 379-94.
- Jimenez Ivars, Amparo and Daniel Pinazo Calatayud (2002) "'I failed because I got very nervous". Anxiety and Performance in Interpreter Trainees: An Empirical Study', *The Interpreters' Newsletter* 11: 105-18.
- Katan, David (2011) 'Occupation or Profession: A Survey of the Translators' World', in Rakefet Sela-Sheffy and Miriam Shlesinger (eds) *Identity and Status in the Translational Professions*,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65-87.
- Pöchhacker, Franz (2011) 'Conference Interpreting: Surveying the Profession', in Rakefet Sela-Sheffy and Miriam Shlesinger (eds) *Identity and Status in the Translational Professions*,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49-64.

Setton, Robin and (Alice) Guo Liangliang (2011) 'Attitudes to Role, Status and Professional Identity in Interpreters and Translators with Chinese in Shanghai and Taipei', in Rakefet Sela-Sheffy and Miriam Shlesinger (eds) *Identity and Status in the Translational Professions*,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89-117.

Zannirato, Alessandro (2008) 'Teaching Interpreting and Interpreting Teaching: A Conference Interpreter's Overview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n John Kearns (ed.) *Translator and Interpreter Training: Issues, Methods and Debates*, London and New York: Continuum, 19-38.

Zwischenberger, Cornelia (2011) 'Conference Interpreters and Their Self-representation: A Worldwide Web-based Study', in Rakefet Sela-Sheffy and Miriam Shlesinger (eds) *Identity and Status in the Translational Professions*,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119-34.

[Abstract]

**On Undergraduate Trainee Interpreters' Perceptions of Interpreter Training and Interpreting as a Profession: A Small-scale Questionnaire Survey**

Lee, Sang-Bi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study aims to demonstrate undergraduate trainee interpreters' perceptions of and thoughts on interpreter training and interpreting as a profession. For this purpose, a small-scale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among undergraduates majoring in consecutive interpreting at a university in Seoul. The questionnaire asked the students about 15 topics, including what first comes to mind when they think of interpreter training, changes in their perceptions of interpreting, what they see as most challenging during the course of learning interpreting, their thoughts on the status/roles of professional interpreters, and the strongest/weakest points of interpreting as a profession.

▶ Key Words: undergraduate trainee interpreters, interpreter training, professional interpreters, students' perceptions, questionnaire survey.

이상빈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통번역학과 조교수

Email: sblee0110@gmail.com

관심분야: 번역자학, 통번역담론, 통번역교육 등

논문투고일: 2013년 7월 31일

심사완료일: 2013년 9월 6일

게재확정일: 2013년 9월 16일